

60년대 말경 신문의 '해외화제' 난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 뉴욕의 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시장에게 편지를 썼다. 내용은 자신이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20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고 그래서 어렵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자신을 포함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뉴욕시가 청소부에게 자신보다 많은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란 항의였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즉각 답장을 했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정치학을 택해서 뜻한 바 대로 정치학교수가 되었고 대학교의 고용계약에 따라 합당한 봉급을 받고 있지만 청소부는

더럽고 힘들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시장은 나아가 만일 당신이 보수에 관심이 있다면 청소부를 지원하라면서 그럴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특별 채용

의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3D업종에 대한 기피증이 심하다. 이른바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어려운(Difficult) 직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본디 3D는 제조업·광업·건축업 등 분야의 산업에 해당되는 말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IT와 BT, NT산업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직까지 이 범주 속에 넣고 있다.

IT산업은 말만 요란했지 기술주기(life cycle)가 짧아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일도 창의적이라기보다 제품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일이 많은가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빼앗기기 십상인데다 보수마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경우 대부분 IT산업 분야 청년이 40세를 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는 짧은 기술주기에 덧붙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

란 지적이다. BT와 NT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직을 기피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현실인식이다. 남이 놀 때 놀지 못하고 20여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땀건만 연구직이 되면 좁은 공간에 파묻혀 살아가야 하는 데다 보수는 물론 보람도 찾기 힘든 직종이란 생각이다.

일반 고등학교는 물론 과학고등학교 출신들마저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른바 21세기에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갈 IT, BT, NT 분야는 물론 연구직마저 젊은이들의 눈에 3D업종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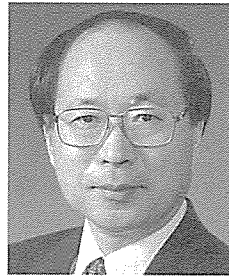
정부는 지금 3만달러 시대 경제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국가 과학기술지도도를 만들고 있다.

10년 후인 2012년까지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열로 올려놓기 위한 방대한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국가과학기술발전 5대 비전과 13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49개 전략제품과 97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근간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룩함에 있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 산업과 연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수 인력이 동참해야 한다. IT, BT, NT와 과학기술 관련 연구직 분야에 우수인력을 끌어오아야 한다.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우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대학교수 보다 뉴욕시의 청소부가 보다 많은 보수를 받듯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우대받는 과감한 정책과 방안이 마련될 때 과학기술 기피 현상도 해소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①7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10

3D업종과 과학기술



李光榮
(과학문화진흥회 부회장)